

## 20세기 제주도의 사회변동과 발전\*

이 상 철\*\*

### 요 약

이 글은 제주를 분석단위로 삼아 20세기 제주사회가 겪어온 변화와 발전과정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이다. 한 사회를 단위로 하여 한 세기의 사회변동을 개괄하는 것은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약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변동을 고찰하면 이것이 바탕이 되어 구체적 시기나 개별 주제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는 이점이 있다. 또 20세기가 그 전후 세기에 비해 질적 변화가 큰 시대라면 그 성격을 정리하는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사회변동은 내외적 제요인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20세기 제주사회의 변동에는 이전과는 달리 내생적 요인보다 외생적 요인이 보다 규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자본주의가 세계 구석구석까지 침투하여 세계를 자기 모습대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세계체제와 한반도라는 외생적 요인, 즉 자본주의세계체제와 한국사회의 요구들이 각각 제주사회변동의 제1, 제2 변수였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세계체제 한반도 제주 세 차원의 지역관계를 중심축으로 하고, 시간을 보조축으로 하여 접근한다. 이 축들 위에서 구체적 분석대상은 사회 각 부문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이다.

정치부문에서는 ① 세계체제 내의 지정학적 위치 ② 중앙집권제 전통과 지역정치; 경제부문에서는 ①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 ② 산업구조 ③ 변방에서 주변으로 ④ 산업화와 탈산업화; 사회부문에서는 ① 인구와 도시화 ② 신분에서 계급으로 ③ 농민운동과 사회운동; 문화부문에

\* 이 논문은 2000년도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제주대 교수, 사회학

서는 ① 시간과 공간 ② 언어 ③ 의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대내적으로, 제주는 20세기 초 전형적인 전통사회의 모습에서 전통사회의 특성은 약해지고 근대사회의 특성이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회의 성격은 여전히 혼재되어 있다. 전통적 성격은 육지에 비해 더 강하다. 사회 제부문에 따라 혼재의 비율도 다르다. 정치경제적 사회제도보다 사람들의 의식, 태도와 문화에서 전통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20세기말에는 전통사회, 근대사회의 측면에 탈근대사회의 요소까지 가세하여 세 특성이 공존하고 있어 문제가 복잡해졌다.

대외적으로, 제주는 금세기를 주변부의 주변에서 출발하여 이제 반주변의 주변으로 귀착하였다. 주변부 봉건사회의 변방에서 반주변부 자본주의사회의 침범으로 변화했다. 외세의 침입을 먼저 받게 되는 변방에서 외부로 진출하는 전진기지로 바뀌었다. 20세기의 시작은 제국주의 식민지로 떨어질 암담한 상황이었지만, 끝은 종속 심화와 주체적 발전의 상반된 가능성을 열어 놓은 채 맞이하게 되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쉽지 않은 목표에 도전하고 있는 지금, 탈근대의 조류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추세에도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20세기 제주도의 사회변동과 발전을 성찰하는 이유도 지난 역사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이 과제에 제대로 응답하기 위함이다.

## I. 머리말

한 세기가 마감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지난 백년을 보는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20세기는 봉건적인 왕조, 농업, 신분 사회와 동북아시아 중심의 국제관계라는 틀이 바뀌었던 질적 변화의 시기이다. 그전의 각 세기들과는 달리 연속성이 적다. 21세기도 20세기에 비해 질적 변화가 큰 시대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질적 변화 두 단계의 중간에서 변화의 성격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 글은 제주를 분석단위로 삼아 그러한 변화의 성격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20세기 제주사회가 겪어온 변화와 발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것은 21세기에 대한 전망을 하는 기초작업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회의 전반적인 변동을 바탕으로 삼으면 개별 주제들에 대한 접근도 용이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20세기 제주를 볼 것인가? 다루어야 할 기간은 길고 범위는 넓다. 백년이란 기간과 사회 전체라는 범위는 만만한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20세기는 인류사에서 가장 변화가 심했던 시기이다. 한반도와 제주는 더욱 격심한 변화를 겪어왔다. 분석이 쉽지 않은 만큼 접근방법의 중요성은 더 크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매년 발생한 중요한 일들을 나열할 수 있다. 사건별로 접근할 수도 있다. 가족 인구 교육 종교 주택 음식 농작물 등 주제별 연구도 가능하다. 그 중에서 중심축을 설정해서 전체를 꿰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전체가 일관성 있게 정리될 때 변동양상은 체계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중심축은 연구자의 연구의도와 가치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자연환경과 인간, 기술발전, 중앙과 지방, 세계와 제주,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시장경제의 발달, 계급투쟁 등 축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다양하다. 분석시기는 전체를 한 시기로 간주하거나 크게 몇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한 시기를 그 안에서 세분하는 것도 괜찮다.

이 글에서는 세계체제 한반도 제주 세 차원의 지역관계, 즉 공간을 중심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횡축이라고 불러도 좋다. 또 20세기를 한 시기로 간주하되 크게 해방공간 전과 후로 나누어 성격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 전과 후도 사안에 따라 각각 세분할 것이다. 이 시간이 보조축 또는 종축이 된다. 이 축들 위에서 구체적으로 분석되는 대상은 사회 각 부문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이다.

## II. 분석틀

금세기의 지리적 공간은 자본주의적 공간이다. 제주는 한반도와 함께

자본주의세계체제의 절대적 영향하에 존재해 왔다. 자본주의가 세계 구석구석까지 침투하여 세계를 자기 모습대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제주는 또 한반도와 한국사회의 영향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다. 이 공간 또는 지리의 수준과 상호작용은 '자본주의세계체제-(동아시아)-한반도/한국사회-제주' 차례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첫째, 제주를 분석할 때 제주의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한반도 또는 한국사회의 요인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본주의세계체제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한반도 한국사회를 경과하여 배경으로 작용함을 뜻한다. 셋째, 동아시아 지역은 사안에 따라 독립적인 변수로 간주하거나 세계체제에 포함시켜 함께 다룰 수 있다. 그렇지만 분석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제주이다. 세계체제와 한반도라는 외생적 요인, 즉 자본주의세계체제와 한국사회의 요구들이 각각 제주사회변동의 제1, 제2 변수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연구대상인 것은 아니다. 이들은 본격적으로 다루기보다 제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살피는 게 바람직하다.

금세기의 시간도 자본주의의 확장과정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제국주의의 발흥과 전쟁, 식민지의 증대와 해방, 산업화의 확대와 환경오염, 사회주의국가의 탄생과 붕괴, 민족주의의 성장과 갈등, 민주주의의 확대 쇠퇴 부흥, 세계화의 경향 등은 세계자본주의의 시간적인 전개과정과 함께 진행되어 온 주요 측면들이다. 그렇지만 시간에서는 모든 시기를 동등하게 다루기보다 최근에 이를수록 비중을 높이는 게 좋을 것이다. 우리가 서 있는 현 시점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회변동은 내외적 제요인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20세기 제주사회의 변동에는 이전과는 달리 내생적 요인보다 외생적 요인이 보다 규정적으로 작용하였다. 20세기 전반기에는 외국 제국주의의 직접 지배를 받았다. 흡수분열은 급격한 변화로 특징지어지는 20세기 세계사를 극단의 시대라고 정의한 바 있다(Hobsbawm, 1994). 한반도와 제주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규정적인 힘 아래에서 존재해 왔다. 후반기에도 제국주의 세력들의 영향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산업화 틀 내에서만 존재가 가능했다. 제주는 한반도와 한국사회 변동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다음은 제주사회변동을 직접 규정해온 한반도와 한국사회의 변동을 세계체제와의 관계에서 시기별로 개괄한 것이다.

## 1. 20세기 전반기, 1901-1953년

### ① 1901-1945년

한반도는 세계체제의 주변부이자 제국주의의 식민지였다. 전통사회, 봉건사회였던 조선이 세계정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근대화를 거부함으로써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과 자본주의적 근대화 요구가 그 외인이다. 내인은 내부의 개혁 요구를 억압하고 외인에 부적절하게 대응한 조선의 사회체제이다.

### ② 1945-1953년

전기(轉機)였으나 다시 세계체제의 주변부로 귀결되었다. 침예한 대립 전선이 세계, 동북아, 한반도, 남북한 내부 모두에 이루어졌다.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해양세력 대 대륙세력, 미국 대 소련, 남한 대 북한이 그것이다. 대립의 결과 한국전쟁을 피하지 못했다. 분단이 심화되었다. 남한에서는 반공 보수 일변도가, 북한에서는 공산당 일당독재가 전개되었다.

## 2. 20세기 후반기, 1953-2000년

### ① 1953-1961년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한국에서 이승만의 독재가 이루어졌다. 미국의 절대적 영향하에 신식민지라고 할만한 상태가 되었다.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은 거의 정체되었다.

### ② 1961-1987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 주도의 개발독재가 전개되었다. 압축적 산업화 근대화가 달성되었다. 한국은 세계체제의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위상이 변하였다. 그 대가는 비민주적인 정치 사회 문화 풍토와 계급갈등이었다.

### ③ 1987-2000년

민주화 이행시기이다. 탈근대와 정보화 조류가 도래하고, 세계화 파고

가 더 높아졌다. 남북한 평화체제와 통일의 가능성이 가시적이 되었다.

### III. 전통사회의 성격

20세기 제주사회변동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그전 전통사회의 성격부터 파악해야만 한다. 전통사회의 성격을 현재의 성격을 파악하는 비교준거로 삼아야 무엇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이상철, 1997: 194-196).

한 사회의 성격을 형성하는 요인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둘로 대별할 수 있다. 제주도 전통사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데 기초가 된 내적 요인은 화산섬이라는 자연적 조건에서 출발한다. 화산섬의 영향은 도서성과 저생산성 두 가지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좁은 섬이라는 전자의 영향은 제주사회의 상대적 고립, 고유성의 유지, 사회관계와 자원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박한 토지에 의한 저생산성의 영향은 힘든 삶의 조건과 평등사회 지향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평등사회란 잉여생산이 힘든 만큼 계급분화가 이루어지기 힘들었다는 말이다. 제주도가 자랑하는 삼무--도둑, 거지, 대문 세 가지가 없는 살기 좋은 공동체--의 전통은 잉여의 축적이 어렵기 때문에 모두가 열심히 일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조건에 기인한 것이다. '조낭정신'도 이것에 기초한다. 과학기술이 현재보다 덜 발달한 전통사회에서는 사회제특성이 압도적으로 자연적 조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과거로 갈수록 외적 요인도 이러한 자연적 조건 위에서 주로 작용한다. 제주도 외적 요인의 작용은 변방으로 특성화할 수 있다. 제주는 한반도 중심에서 격리되어 전국적인 중요성이 낮기 때문에 중심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수탈 당해 왔다. 격리 때문에 제주에는 외세--특히 왜구--에 마저 수탈 당하였다. 이중 수탈의 역사는 제주가 고려의 직접 통치를 받은 이래 변방이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내외적 요인에 적응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사람들

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결속하는 사회적 전통을 형성해 왔다.<sup>1)</sup> 저생산성에 따른 계급 미분화는 이러한 지연성(地緣性)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어업보다는 농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생활해 왔다. 섬이기 때문에 어업에 유리한 자연적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이에 반하는 사회적 요인도 여럿 있었기 때문이다. 육지로 떠날 것을 염려해서 선박 건조를 제한한 조선시대 정책, 왜구의 약탈을 피하기 위한 중산간 마을 선호 등이 그것이다. 제주도는 어업사회보다 농업사회로서의 기본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sup>2)</sup>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자본주의세계체제와 제국주의라는 외부의 사회적 조건이 제주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지배적 요인이 되었다.

#### IV. 사회 제부분의 변동양상

전통사회의 성격을 규정했던 자연적, 사회적 조건들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체제의 변화에 따라 역사적으로 상이한 영향을 제주사회에 미쳐왔다. 근세기에 들어서는 과학기술이 더욱 발달함으로써 제주는 자연적 제약에서 상당히 벗어나게 되었다. 자연적 내적 요인의 영향이 줄어드는 대신 한국사회와 자본주의세계체제, 즉 사회체제의 영향은 커지

- 
- 1) 이창기(1995: 403-407)는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러한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사람들이 형성해온 도전 적응 초월 세 가지 기제로 설명한다. 그는 이 기제들이 제주사람들의 의식구조와 생활태도뿐만 아니라 물질문화 관습 제도 등을 이해하는 데도 유용한 설명틀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 가족제도에서 부계적(父系的) 원리와 비부계적 원리가 이원적(二元的)으로 공존하는 현상은 그 구체적 예라고 본다. 신행철(1995: 11-13)도 환경적 조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지연성이 강한 사회가 되고, 지연적 결속의 범위로 마을이 중요 단위가 되었다고 파악한다.
  - 2) 제주가 농업사회였다는 점은 마을의 성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마을은 중산간과 해안의 용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중산간 마을에서는 반농반목(半農半牧)이, 해안 마을에서는 반농반어(半農半漁)가 행해져 전체적으로 볼 때 농업이 기반이었다.

게 되었다.<sup>3)</sup>

## 1. 정치

지난 1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변동을 겪었다. 한국의 한 부분인 제주도 그러한 변화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변화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격변에서 유래되었다.

그렇지만 중앙 정치에 비해 지역 정치가 활성화되거나 지역간 차별성이 크지는 않다. 그것은 강력한 중앙집권제 전통, 식민지 국가기구, 권위주의적 국가 탓이다. 정치가 다른 부문에 비해 그만큼 발전이 늦다.

### 1) 세계체제내의 지정학적 위치

자본주의세계체제의 변화는 주변부인 한반도에서 증폭되어 나타났다. 한말 열강들의 각축, 일본 제국주의, 해방 후 미국과 소련의 지배력은 한반도를 규정하는 외적인 정치력이었다. 냉전하의 한국은 자본주의 미국의 첨병이 되었다. 그 후 한국의 정치는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존재해 왔다. 이러한 경향은 한반도의 변방인 제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반도의 변화는 제주에서 한층 더 증폭되어 나타났다. 한반도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변화는 더디었지만 정치적 격변의 피해는 더 컸다.

조선이 열강으로부터 받은 수난은 변방인 제주에 증폭되어 전개되었다. 이재수난은 중앙권력의 보호가 미약한 변방이 외세로부터 겪게 되는 피해를 여실히 드러낸다. 일제하의 착취도 제주에서 더 심하였다. 2차 세계대전 마지막에 일본 본토를 방어하는 최후 항전지로 제주가 선택되었던 사실도 이를 반영한다. 당시 제주는 전도가 요새로 변하고 있

3) 이 장에서 다루는 한말과 20세기초 제주에 대한 자료는 아주 부족하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항목들은 대강인 것이거나 추정치가 많다. 일제나 해방전후의 사정도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다.



었다. 원폭 투하로 일본이 예상보다 일찍 항복하지 않았다면 제주는 미군에 의해 쑥대밭이 되었을 것이다.

해방 후 제주는 분단선인 38선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위치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남과 북의 대치는 제주에서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폭발하였다. 48년 남한 단독선거를 계기로 발생한 4·3이 그것이다.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진 것은 중앙정부의 통제나 사회통제가 약화된 변경 주변부의 위상 탓이 크다. 4·3은 그 후 제주의 정치나 제주 사람들의 정치의식에 절대적인 변수로 자리잡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수많은 피난민이 제주로 건너왔다. 모슬포에는 신병양성을 위한 제1훈련소가 생겼다. 이 현상들은 제주가 지리적으로는 전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없어진 훈련소는 일본군이 닦아놓은 터를 이용한 것이다. 80년대 말 필리핀에서 철수하게 된 미군기지의 대체지로 거론되었던 송악산도 그 일대에 속한다(조성윤, 1992).

IMF 사태는 국제자유도시 건설 논의를 다시 하게 하였다. 후보지로는 인천 목포 제주 세 지역이 경합하였다. 중앙정부는 이 중에서 제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유는 경제적인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제주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곳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으리라고 짐작된다. 첫째, 일이 잘못될 경우에도 격리된 섬이므로 피해가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일이 잘못되더라도 섬의 규모가 작고 인구도 적으므로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실험을 행하는 데 적격이라고 여겨졌을 것이다. 이것들은 제주가 한국의 주변부이자 세계체제의 주변부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 2) 중앙집권제 전통과 지역정치

조선은 봉건적 세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제 국가였다. 국가와 중앙정부는 사회 어느 부문이나 지역보다 강력한 존재였다. 일제하 식

민지도 강력한 국가기구를 필요로 했다. 조선인의 저항을 억누르고 식민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였다. 해방직후 일시 이완되기는 했으나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국가는 다시 강력하게 되었다. 미군정도 일제와 같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과 식민지에서 과대 성장한 국가를 신생국 한국은 물려받았다(이준식, 1999). 분단과 뒤이은 한국전쟁은 국가를 더욱 강력하게 한 계기였다. 전쟁으로 자본과 시장 부문은 파멸해지고 시민사회 부문은 성장할 수 없었다. 국가는 독보적인 힘을 바탕으로 60년대 이후 개발독재를 행하였다. 그렇지만 국가가 주도한 경제성장은 역설적으로 국가의 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경제성장에 따라 자본과 시장이 커지고 시민사회도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87년의 항쟁은 권위주의 국가가 더 이상 시민사회를 억압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서 발생한 것이다. 지역정치도 이 후에야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 정권이 독재 또는 권위주의적인 것은 대외 종속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대외 종속이 대내 독재를 강화시킨 것이다. 여러 저항운동은 제국주의 정부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분쇄되었다. 특히 해방 후 권위주의 정부는 계급배제 정책에 의해 반노동 반민중 반공 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계급에 따른 정치지형 형성은 애초부터 힘들게 되었다. 대신 지역주의에 입각한 정치가 판을 치게 되었다. 지역주의란 지역의 독자성에 입각한 정치가 아니다. 국가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각 지역이 분할되어 이용될 뿐이다. 도내에서 소지역주의가 작용하는 것도 이러한 경향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중앙집권제와 권위주의 전통은 제주에 지역정치가 가능할 수 없게 했다. 조선조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은 선정을 베풀 적이 드물다. 중앙의 눈길은 미치지 못하고, 한두 해 있다가 돌아가야 할 처지라 수탈에 바빴다. 도내 권력층인 양반들은 지방관이나 유배되어온 중앙 정객들과 친분 쌓기를 중시했다.<sup>4)</sup> 도민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중앙의 눈치를

4) 조선은 중앙집권제 국가였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온 정치인과 친분을 맺으면 이들이 중앙에 복귀했을 경우 제주 양반들의 유력한 후원자가 될 수 있었다. 이 점은 중앙집권제가 지속되는 그 후에도 동일하게 작용해 왔다. 또한 중앙 정치인이 앞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일제부터 6공화국 때까지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정치에서 지역주의가 일차적 변수일 때도 제주는 규모가 작아 독자적 지분을 가질 수 없었다. 오히려 정권에 의해 동원되기 쉬웠다. 그럴 때 혜택을 받기도 했다. 제주는 집권세력의 동향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기껏해야 중립을 지킬 뿐이었다. 설혹 중심부에 대해 반발의식이 있더라도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에는 심적 부담이 컸다. 이 경향은 정치적 성향이나 투표 경향에 잘 반영되고 있다. 선거에서는 야당이 절대 약세였다. 선호도가 높은 무소속도 당선된 후 여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것이 다반사였다.<sup>5)</sup>

95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처음으로 도민들은 스스로 대표를 뽑을 수 있게 되었다. 실질적인 지역정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 당선자들은 업적을 과시해야 재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곳에서 인기 위주, 이벤트 식, 한탕주의, 개발 위주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 제주도의 외채비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다. 내실을 다져가야 할 때이다. 또 과도한 경쟁으로 도민들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심화시키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 2. 경제

금세기 제주사회변동은 정치적 격변에 직접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자본주의세계체제에 의한 경제구조의 변화에 더 많이 의존해 왔다.

---

유교문화를 제주에 전파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도 제주 양반들이 이들을 후대한 이유이다(양진건, 1999). 지금도 제주에는 유배 당시 문화를 전파한 다섯 명의 유학자를 기리는 오현단과 오현고등학교가 남아있다.

- 5) 김석준(1998)은 무소속 선호를 제주 선거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보는 것을 경계한다. 무소속 선호의 또 다른 면에는 친여적 투표성향이 강하게 존재한다고 한다. 이 두 경향은 4·3에 대한 기억과 그에 뿌리를 둔 도민들의 정치적 정체성과 삶의 전략이라는 동일한 원리가 작용한 결과로 파악한다.

## 1)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

가장 큰 변화는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사회로 변화한 점이다. 조선시대 제주는 육지와 교역이 단절되다시피 했다. 육지와 왕래에 필요한 배 건조도 중앙정부가 제한했었다. 생산은 마을 단위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논 대신 밭작물을 재배했기 때문에 집단적 작업도 많지 않았다. 교역은 농촌인 중산간 마을과 어촌인 해안 마을간 주로 도내에서 이루어졌다.

일제 때는 공간적 근접성 때문에 한반도의 다른 지역보다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자급자족적인 재생산구조를 유지하였다.

60년대 한국사회의 개발이 시작되면서 산업화와 자본축적 과정에 제주도 편입되어 왔다. 제주는 지역의 자율적인 재생산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한국자본주의의 재생산 기제에 통합 종속되었다. 자급자족적 농업은 육지부 시장을 겨냥한 상업적 농업으로 변화하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관광도 주로 육지부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육지부와의 통합 종속은 2차산업의 성장을 더욱 어렵게 하면서 역내 자본축적을 저해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경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본제부문은 일부에 한정되고 여전히 소상품생산부문의 비중이 높다.

94년 WTO 체제의 출범을 전후하여 한국시장의 개방이 확대되었다. 국내에서 비교우위가 있던 제주의 기후 지역 등이 세계체제 내에서는 우위를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아열대 열대 작물재배가 세계화된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다. 이제 농업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의 해외 관광과 북한 관광이 늘어나면서 관광도 세계시장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요컨대 제주경제는 한반도 시장과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편입하게 되어 폐쇄 체제에서 개방된 경제로 나아가게 되었다. 국제자유도시 시도는 한국 시장을 우회하면서 세계자본주의 체제와의 직접 대면도 본격

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 2) 산업구조

농업에 기반을 둔 제주의 산업구조는 일제하에서도 성격이 바뀌지 않았다. 산업구조 변화는 60년대 한국의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가능했다(김태보, 1998). 한국사회의 개발은 제주를 그 하위고리의 하나로 연계시켜 진행되었다.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이루어진 한국의 산업화는 제주도를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기본구조를 바꾸어 놓았다.

개발의 결과 농어업 중심의 농업사회에서 농업과 관광 중심의 산업사회로 바뀌었다. 농업은 보리 조 등 자급자족적 주곡 생산체제에서 시장을 겨냥한 환금작물 재배로 변화하였다. 환금작물 중에서는 감귤의 비중이 아주 크다. 관광은 전체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광이 으뜸가는 산업이 된 것은 제주의 여건상 관광이 비교우위산업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 자체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주도해 왔다. 제주의 자연과 인문사회 환경이 육지부와 다르기 때문에 관광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60년대는 경제개발이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레저와 관광이 국내 시장에서는 산업으로 성립될 수 없었다. 국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는 애초부터 국제자유지역과 국제관광지를 겨냥하였다. 이것은 제주가 한국사회 개발에 긴요한 외화 획득 창구로 간주되었음을 뜻한다. 한국의 자본축적에 제주가 도움이 되도록 하위 고리로 편입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다만 국내외 여건상 이를 바로 추진하지 못하고 연기를 거듭하면서 우선 국내관광지로 활성화시켰다. 그 결과 관광이 3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97년 IMF 사태가 발생하자 한국의 외자에 대한 요구는 폭증했다. 제주의 관광산업도 한계에 봉착했다. 국제자유지역과 국제관광지화를 더 미루기는 어렵게 되었다. 99년 국제자유도시로의 결정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중심부와 제주의 지배세력의 이해관계가 이 점에서 맞

아떨어진 것이다.<sup>6)</sup>

### 3) 변방에서 주변부로

전통사회에서 제주는 한반도의 변방이었다. 중심에서 격리되어 긴밀한 관계를 갖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수탈을 당해왔다. 또 외세를 전면에 대하여 이들로부터도 수탈 받는 이중 수탈의 악조건에 있었다.

시장경제체제와 산업구조의 변화는 제주를 변방에서 주변부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했다.<sup>7)</sup> 다음 특성들은 그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첫째, 제주사회는 육지부에 통합 종속되어 외부의 규정을 강하게 받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와 시장경제에의 통합은 단적인 예이다. 둘째, 제주사회는 중심에 불평등관계로 종속되어 있으면서 중심을 보완하고 있다. 셋째, 산업 및 부문간 연관성이 결여되고 자본제적 생산관계의 발달이 지체되었다. 그 결과 계급구성도 중심부와 상이하다. 요컨대 개발에 의해, 한국사회가 세계체제의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이동하는 동안 제주는 한국의 변방에서 주변부로 성격이 변하였다.

---

6) 엄밀히 얘기하면 제주도를 국제자유지역화하려는 구상은 80년대까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 왔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시에 홍콩이 그 동안 해왔던 국제적 역할을 제주가 상당 부분 대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한국의 경제개발에 요긴한 외화 획득과제를 2차산업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제주에서 일정 부분 담당하게 하려는 의도이다(이상철, 1995: 282-289).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서는, 홍콩의 국제적 역할이 크게 변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제주의 여건도 유리하지 않아 중앙정부는 국제자유지역화에 소극적이 되었다. 대신 제주도내 정치권과 자본가는 이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국제자유도시 후보로 확정되었다. 도내 지배세력이 개발 편향적인 이유는, 첫째 양대 소득원인 감귤과 관광산업이 한계에 보임에 따라 돌파구를 마련하고, 둘째 개발 확대 과정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과시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7) 한국사회에 제주가 통합될수록 제주는 기본특징이었던 도서성이 점차 감소하고 한국의 한 지방으로서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60년대 이후의 개발

#### 4) 산업화와 탈산업화

개발 이후 산업의 기반과 구조가 변하여 산업화됨으로써 제주는 농업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했다. 그런데 1, 3차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2차 산업의 비중은 극히 낮은데도 제주도에 산업화와 산업사회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까? 산업화는 사용되는 에너지원과 에너지량의 변형을 통한 경제발전, 특히 기술경제적 과정을 주로 가리킨다(Lauer, 1977: 369-423). 산업화와 산업사회가 반드시 2차산업만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개념에는 공업생산이 중심이 되어 변화해온 사회경제구조와 생활양식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다. 제주는 공업의 비중이 극히 낮지만 사용하는 에너지원과 양, 생활양식, 사회구조 등에서 산업화와 산업사회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에너지로 석유 전기 가스를 주로 사용하고, 상하수도 전기 전화 자동차 사용이 일상화된 게 그 증거이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탈산업사회의 징후까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중심 산업인 관광이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 혁명으로 정보사회의 특성이 여러 측면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 3. 사회

정치 경제적 격변은 사회 문화에도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사회 부문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는 한둘이 아니지만 사회구조 연구의 기초가 되는 인구와 계급은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 다음 그 동안 소홀히 취급되었던 사회운동과 시민사회에 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

은 제주를 한국사회의 변방에서 주변부로 변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변방이지만 나름대로 자율적인 재생산구조를 유지했던 제주가 육지부에 완전히 통합 종속되어 자율적인 재생산구조의 붕괴를 겪게 되었던 것이다.

## 1) 인구와 도시화

제주 인구는 1892년 1만 2천 8백 가구에 8만 8천명이었다. 25년에는 20만 5천명, 44년은 22만 1천명이었다. 60년 28만 2천명, 85년 48만 9천명, 현재는 52만 명 정도이다. 25년까지의 인구성장은 서양의학이 전파되어 사망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44년까지 별로 증가하지 않은 것은 일본으로의 이주가 많았던 탓이다. 해방 후 귀환인구, 4·3의 피해, 한국전쟁시 육지의 피난민은 50년대까지 제주도 인구를 불안정하게 했다. 60년대 들어와서 인구변천은 정상이 되었다. 이후의 인구성장은 출생률 증가에 기인한다. 제주에는 육지부에 비해 출생률의 저하 경향이 10여 년 늦게 도래하였기 때문이다(이창기, 1999: 27-110).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가는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없다. 시기에 따라서 이입이 많기도 하고 이출이 많기도 하다. 제주 거주자 중 본도 출생자 비율은 약 9할로 높은 편이다. 전통사회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이 탓도 클 것이다.

성별 인구구조를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 성비는 30년에 87, 46년 76, 60년 87, 70년 92, 80년 96, 90년 98이다. 30년의 지수는 전통사회에서 어로작업으로 남성 사망률이 높은 것을 반영한 것이다. 46년의 지수는 2차 세계대전 탓이다. 60년대이래 성비는 회복세를 보여 90년대에 와서는 정상이 된다. 그러나 20세기동안 전국 지수는 항상 남자 초과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주가 여다(女多)의 섬이라는 평판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일부다처제나 축첩제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데서 그 영향을 엿볼 수 있다.

도시 인구는 해방 후 귀환 인구로 인해 증가하였다. 이들 중 다수는 농촌인 고향에 적응하지 못해 제주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전쟁 시 피난민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도시 인구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개발이 전개되면서부터다. 도내에서 제주 시와 서귀포시 지역의 인구는 25년 30%, 44년 33%, 55년 32%, 60년 37%에서 90년 62%로 증가했다. 현재 제주시 인구만도 도 전체의 반을



웃돈다. 60년대 개발부터 도시화 현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산업화에 동반하여 도시화가 진행되었던 것이다(제주도, 1993a: 458-481).

그 결과 군부의 인구는 조금씩 줄고 있다. 그렇지만 관광과 감귤 산업의 성장으로 제주도내에 취업할 기회가 있어 이도(離島) 비율이 육지 농촌에 비해서는 낮다. 개발에 따른 고급인력과 건설노동력 등의 수요로 이입인구도 상당수 된다. 도시화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양식이 달라지고 교육 문화 수준도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 농촌인구가 1/3을 초과한다. 농촌마을도 도시로부터 크게 격리되지 않아 근처에서 생활권을 같이 유지하고 있다. 도 전체를 두고볼 땐 반농반도적(半農半都的) 성격이 강하다.

## 2) 신분에서 계급으로

이재수가 관노였던 사실이 말하듯 20세기 초 제주사회는 봉건적 신분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다. 또 관노인 그가 민란의 장두였다는 데서 신분구조가 급속히 와해되고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이후 식민지화 해방 토지개혁 한국전쟁 개발 세계화 등의 전기를 거치면서 한국과 제주는 신분구조가 완전히 해체되고 근대적 계급구조를 갖게 되었다.

세기초 제주는 농업사회여서 농어민의 땀따 부르주아지 또는 자소작농과 어민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잉여 축적이 힘든 만큼 부의 불평등한 구조가 육지에 비해 약했다. 일제하에서도 이 성격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본주의화가 진행되면서 상업 등에서 새로운 부를 축적할 기회와 계급분화가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 해방 후 귀환인구와 한국전쟁 시 외지인은 룬펜과 노동자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계급구조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난 계기는 경제개발이었다. 60년대 이후 제주는 한국사회의 경향을 따라 땀따 부르주아지는 줄어들고 노동자

계급은 늘어난 게 가장 큰 특징이다.<sup>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ㅼ때 부르주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동자의 두 배가 넘는다. 경향성이 한국사회보다 더딘 것이다. ㅼ때 부르주아지 비중은 한국사회보다 2할 가량 높고, 노동자 비중은 2할 가량 낮다. 그것은 육지와는 달리 농업의 비중이 급감하지는 않아 제주의 농민충분해가 더디고, 그만큼 노동자 충원 속도도 느리기 때문이다(이상철, 1995: 300-303). 농촌 ㅼ때 부르주아의 비중이 아직 절대적인 게 제주의 특성이다. 노동자는 성장했지만 한국사회와는 큰 격차가 있다. 특히 제조업의 미발달로 생산 및 관련종사자는 적고 운수장비운전사와 건설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노동자 다음으로 늘어난 것은 도시 ㅼ때 부르주아이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그것은 관광 위주의 개발에 따라 소매업자, 서비스 부문 자영업자, 반 프롤레타리아 등이 성장하여 도시 소생산 부문이 제주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자본가계급은 1% 미만으로 극히 적다. 그나마 대부분은 관리직 공무원과 관리자로 구성되었다고 여겨진다.<sup>9)</sup>

### 3) 농민운동과 사회운동

제주주민들의 저항은 조선 말기에 와서 잇달아 발생하기 시작했다. 조선 후기에 들어 체제가 약화되고 삼정이 문란해지면서 농민이 주축이 된 민란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1901년 이재수난이 발생하면서 20세기 제주 역사의 장을 열었다. 이

8) 계급은 여러 이론에서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계급에 관한 서관모(1984)의 개념 범주 확정 방식을 따르고 있다. 자본가 ㅼ때 부르주아지 노동자로 계급을 삼분하고, ㅼ때 부르주아지도 다시 농촌과 도시 ㅼ때 부르주아지로 대별하고 있다.

9) 이러한 제주도 계급구성의 변화 추세는 한국사회의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비와 특성에서는 차이가 크다. 노동자가 적고 ㅼ때 부르주아가 많은 게 단적인 예다. 이 점들은 소생산부문이 비대하고 자본계급은 미성숙한 제주의 산업구조와 개발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난은 봉건적인 가렴주구 외에 제국주의 세력의 관여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성격이 다르다(박찬식, 1995). 제주의 천주교도가 횡포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 선교사를 등에 업었기 때문이다. 선교사 뒤에는 제국주의 프랑스가 버티고 있었다. 외세의 횡포는 제주가 변방이었던 탓에 더욱 심하였다. 이때 제주는 제국주의 세력, 세계체제와 직접 맞닿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일제하는 식민지 상황이라 운동 여건이 매우 나빴다. 해녀항쟁은 기본적으로 생존권적 투쟁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형태도 적지만 간간이 이루어졌다.

해방 후 한반도를 둘러싼 전선은 제주에 그대로 확장되어 4·3으로 폭발하였다. 이 때 외지인뿐만 아니라 도민들끼리도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일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상처도 깊어 이후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집단 무의식까지 형성되었을 정도이다.

그 상처 때문에 4·3 이후 사회운동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제주도, 1993b: 1344-1346). 56년 도제(道制)폐지반대운동이 있었다. 제주도를 폐지하여 전라남도예 귀속시키려는 정부안이 도민과 시민 학생궐기대회에 의해 취소되었다. 4·19 때는 학생들의 움직임에 이어 교원노조운동이 전개되었다. 8월 제주도 교원노조연맹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5·16 후 이 운동도 사라졌다. 65년 한일협정반대운동 시에도 제주도 학생들이 동참하면서 학생운동이 잠시 활발해졌다. 그렇지만 학생운동은 전국적인 정치 쟁점이 있을 때만 간헐적으로 발생했을 뿐 87년까지는 거의 소강상태였다. 유신체제와 제5공화국의 강압적인 정치에 반대하는 재야 민주화운동도 제주도에서는 드물었다.

이처럼 학생운동이 겨우 맥을 유지하고, 개발과정에서 토지를 상실한 지역에서 미미한 대응이 산발적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그렇지만 개발은 경제성장과 시민사회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이후 민주화의 기초로 작용하기도 했다. 87년 6월항쟁 이후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학관계와 정치 지형이 변하자 제주에서도 시민운동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억눌려 왔던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불만은 개발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국가와 외지 독점대자본이 개발의 주체가 되고, 도민은 개발의 입안 시행 이익의 향유에서 배제된 외생적 개발전략에 대한 반대였다.

본격적인 사회운동은 88년 탐동매립반대운동에서 시작되었다(조성운, 1998). 이 운동을 통해 주민들은 학습효과를 얻었다. 운동도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이 점들은 오랫동안 개발에 저항하지 않았던 도민들의 태도가 급변하는 계기가 되었다(조성운, 1992). 이어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반대와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정 반대 운동이 전도에서 전개되었다. 이외에도 지역별 사안에 따라 다양한 주민운동이 나타났다.

이 시기 운동의 성격을 보면 방어적이고, 주민이 주체이며, 국가와 자본이 대응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철, 1998: 130-132). 왜냐하면 주로 개발을 둘러싸고 쟁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운동 초기에는 학생과 지식인 중심의 재야단체가 일정한 기여를 하였지만 곧 주민이 중심이 된다. 제주에서 주민운동이 활발한 것은 땀땀 부르주아지, 특히 농촌 땀땀 부르주아지 비중이 높고 노동자계급의 비중은 낮기 때문이다. 계급분화가 더딘 만큼 동질성이 커서 사안에 따라서는 전 도민이 참여하는 사회운동도 전개될 수 있었다. 그 대신 자신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는 사회일반의 민주적 요구에는 욕지보다 둔감하다. 시민사회의 성장이 더디다 하겠다. 국가와 시장이 강하고 시민사회는 약한 한국사회의 특성이 제주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4. 문화

문화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는 무척 다양하다. 의식주, 소비와 여가, 통과 의례, 생활용품, 커뮤니케이션, 해녀, 전통문화와 대중문화 등 손꼽기가 힘들다. 그러니 대표로 몇 가지만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상생활을 틀 짓는 시간과 공간, 언어, 의식과 태도가 무난한 주제들이다.

## 1) 시간과 공간

조선시대에 가장 열악한 조건의 유형지라는 점이 말하듯 제주는 시간과 공간에서 변경이었다.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었다. 중앙으로부터 격리된 섬이라는 공간적 조건이 시간의 측면에서도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자연적 조건인 공간이, 자연적으로는 동일한 시간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중앙과 타지방보다 불리한 시간 조건을 제주에 부과한 것이다.

격리된 섬이라는 조건은 제주사회 발전의 심각한 장애물이었다. 그러나 교통 통신의 발달로 시공의 제약은 차츰 극복되기 시작하였다. 일제하에서는 제국주의 중심인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관계가 긴밀해지기 시작하였다. 4·3으로부터의 도피자와 그후 제일동포의 숫자에서 보듯 아직까지 관계가 긴밀하다. 오사카에는 제일 제주동포의 집단거주지도 있다.

60년대부터는 급속한 산업화로 사회간접자본, 특히 항공 해운 전화 전기 등 교통 통신이 발달하였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의 발달이 더함으로써 시공의 장애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격리된 섬이 역설적으로 세계 모든 곳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변하였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제주가 동아시아에서 갖는 이러한 위상을 고려한 것이다. 이제 제주도민이 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섬은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만큼 제주에선 육지의 타지방보다 정보화의 중요성이 더 크다. 현재 인터넷 사용자의 비율이 전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높은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처럼 식민지 해방 개발 세계화 과정에서 제주는 시공의 압축과 확장을 겪어왔다. 이 경향은 산업화와 세계화 과정에서 특히 심하게 전개되었다. 인적 교류가 드물어 그런 대로 폐쇄적 사회를 유지하던 게 개발과 관광 붐으로 무너졌다(오성찬, 2000: 280-281). 세계화는 이를 가속시키고 있다. 이것들은 제주와 외부와의 관계에서 한편 장애물로서의

시공이 극복되어 가는 점을 나타낸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가 하나의 세계적 시공간 체제에 통합되어 감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근대적 시간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의 여러 점에서 전통적 시간이 아직 작용하고 있다. 결혼과 이사 같은 중요한 일을 할 때 날을 잡거나, 역사 지배세력의 역제에도 불구하고 설을 쇠어온 것이 그런 예들이다. 신구간과 별초휴강이 존재하고 제사밥을 먹으러 가는 제주에서는 전통적 시간이 육지보다도 강고하다. 신성한 종교적 시간의 전통이 근대화된 세속의 시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점들은 근대적 시간이 일방적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 따라 불균등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갈수록 전통적 시간의 영향은 약해지고 종교적 시간도 근대화된 세속의 시간에 더욱 종속될 것이 뻔하다(서울사회과학연구소, 1997: 48-54).

시간의 이러한 점은 전통적 공간과 근대적 공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제주사람들은 내외적 요인에 적응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결속해 왔다. 마을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집성촌이 많았던 육지부보다 혈연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했다. 마을이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던 셈이다.

변화는 일제 때 신작로 일주도로 건설로 시작되었다. 개발 이후에는 새로운 공간이나 근대적 공간이 확장되고 있다. 저수지 건설은 용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통적 생활공간의 자연적 한계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교통 통신의 발달은 생활공간의 확산을 가능하게 했다. 역내의 경계가 무너지고 생활공간이 크게 확대되었다. 개발, 즉 도시의 근대화는 자본의 공간지배를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신제주 신시가지 신주거지 등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다. 관공서를 제외하면 개발지역은 대부분 상업지구이거나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신제주는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출발하였다. 현제도 주로 육지출신이 거주하며 토박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자본의 공간 분할과 이용은 대부분의 관광지가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부터 유리된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관광단지, 특히 메가 리조트의 개발시도는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공간 구획이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에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앙로를 경계로 동서 구분을 하는 게 단적인 예다. 이 점의 위력은 선거 혼인 친교 등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외지인은 근대적 공간을 선호한다. 구주거지보다 신주거지를 좋아한다. 제주 출신자들의 배타성을 덜 겪고 좀더 자유로운 도시적 분위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 2) 언어

현재 제주의 언어생활은 고어체의 존속, 방언의 효과, 일본어의 범람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제주는 격리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이 육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다. 문화의 이런 특성은 주변부에서 잘 나타나는 경향이다.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조선시대 삶의 모습을 중국 연변의 조선족이나 중앙아시아의 고려족에서 쉽게 엿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에서는 언어에서 이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고어체가 아직 사용되는 게 좋은 예이다. 대표적으로 아래아는 제주사람 대부분이 발음할 수 있다. 노인들은 이 발음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이러한 특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방언이 육지부 어느 지역보다 많고 표준말과의 차이가 큰 것도 격리 효과라 할 수 있다. 교육 대중매체 인구이동 등에 의해, 제주방언의 사용이 줄어들고 표준말 사용이 늘어나며 표준말에 제주방언이 통합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주방언은 표준말과의 격차가 다른 지역의 방언에 비해 크다. 그래서 제주방언과 표준말의 사용을 전환할 때 얻는 사회적 의미의 전달효과가 더 크며 더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sup>10)</sup>

10) 표준말은 '육지'로 대표되는 남과의 상호작용에 쓰이는 공식적이지자 남의 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제주방언은 '우리끼리' 쓰는 친근한 말이자 우리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제주방언에서 표준말로 전환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의 확대, 상

제주의 언어생활은 지리적 근접성 탓에 일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과거에는 일제 지배, 최근에는 일본 관광객의 영향이 크다. 학교에서 일본어 교육을 받지 않은 노인들도 일본어를 꽤 알고 있다. 개발 이후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이 일본인이어서 일본어 학습 열기가 높다. 제일 제주동포도 많아서 일본과의 왕래가 쉽기 때문에 곧잘 일본에 어학연수나 유학을 가기도 한다. 제주에서는 영어보다 일본어가 더 일반적인 국제어인 셈이다.

요컨대 지난 100년 동안 방언은 많이 약화되고 표준말이 늘어난 게 가장 큰 변화이다. 다음으로는 외국어, 그 중에서도 일본어의 영향이 커진 점을 들 수 있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 영어의 영향이 급증하리라 전망된다. 제주방언이 표준말에 동화되는 현상은 일반성 증대 또는 제주사회가 한국사회로 통합 종속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외국어의 영향력 증대는 세계체제에의 본격적 편입으로 파악할 수 있다.

### 3) 의식과 태도: 전통과 근대, 신앙, 4·3과 반공

제주는 금세기 초 농업사회에서 출발하여 후반기엔 산업사회로 탈바꿈하였다. 세기말에는 탈산업사회의 징후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양식은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지 못해 전근대적인 성격이 다분하다. 이것은 한국사회 일반의 모습이지만 제주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는 권위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개발이 급격히 이루어짐으로써 전통적 요소가 모습을 바꾼 채 현대 산업사회에서도 강하게 작용하고

---

황의 공식적 재조정, 이성적 객관적 말 내용의 강조, 위장의 효과 등을 낳는다. 표준말에서 제주방언으로의 전환은 사회적 거리의 축소, 상황의 비공식화, 감정적 주관적 말 내용의 강조, 감정의 표현 등의 효과를 초래한다(강윤희, 1994). 이와 같이 언어를 전환하는 것과 그 행위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전국과 세계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제주의 경우가 가장 효과가 크며 빈번하다.



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와 계층이동은 사회 구성원들의 전통적인 공동체 연대기반을 와해하였다. 억압적인 국가는 자율적인 집단적 연대를 저해하면서 복지기능은 소홀히 하였다. 그래서 전통적 연대기반을 대체할 근대적 규범은 확립될 수 없었다. 권위주의 정치는 연합을 통한 문제해결을 저지하고 국가적 사회보장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구성원들은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어, 전통적인 연대원리가 변형된 연고주의가 만연하고 있다(신진옥, 1999: 272). 이러한 '개인주의적 집단주의'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합리적 선택이고 순기능을 갖는다. 하지만 전체 사회 차원에서는 비합리적이고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고 있다.<sup>11)</sup> 전통과 근대적 가치의 이중적인 왜곡은 한국사회가 더 이상 발전하는 데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 차원의 합리성과 사회적 차원의 합리성이 일치하는 사회구조로의 개혁이 요구된다.

이러한 특성이 제주에서 더 강한 이유는 제주의 자연적 조건과 개발의 성격이 전통사회의 제특성을 육지부에 비해 더 많이 존속시켰기 때문이다. 산업화 도시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제주는 아직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의 측면이 섞여 있다. 좁고, 격리되고, 시련을 이겨온 사회이므로 아직 대면 사회적(對面 社會的) 측면, 내외집단간에 적용되는 규범이 서로 다른 이중도덕(二重道德, dual morality)이 남아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기제로서 전통적 요소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 때문에

---

11) 김선업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연줄망과 연고주의가 개인화된 연줄도 아니고 집단주의적 연줄도 아닌 '집단화된 개인적 연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1992: 28-29; 1993: 186-190). 집단화된 개인적 연줄은 개인주의적 성격이 약한 친족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의 동질성을 기초로 형성되고 작용한다는 점에서 '집단적'이다. 하지만 집단 전체의 이익보다는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과 목표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강하고 집단준거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이다. 이 연줄에 기초한 사회적 유형을 '개인주의적 집단주의'라 할 수 있다. 개인주의적 집단주의는 집단이 행위의 토대를 이룬다는 점에서 집단주의에 속하지만, 개인이 집단에 흡수되기보다 집단을 이용 또는 동원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는 개인주의에 해당된다. 이것은 전통적 연대원리가 현대사회에 재구성되어 활성화된 것이다.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사회운동이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숙은 더디다. 전통적 공동체와 근대적 국가 사이에 매개체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거나 원로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지 모르겠다. 물론 4·3 이후 바른말하거나 나섰던 자들 대부분이 피해를 입은 것도 원로 부재와 시민사회 저성장의 한 원인일 것이다.<sup>12)</sup>

전통사회에서는 민간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불교의 영향력이 컸다. 조선조 지배 이데올로기이자 체제이념인 유교는 주로 지배층인 양반들 사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형상 목사 때 '당 오백 절 오백'이라며 이를 파손한 행위는 유교가 민중들의 일상생활에 까지 깊숙이 뿌리내리지는 못했음을 드러낸다.

과거 제주에서 삶의 조건은 열악했다. 화산섬이기 때문에 토지가 척박하여 생산성이 낮고 어로행위도 위험이 컸다. 중앙의 수탈과 외적의 침략도 많았다. 이러한 여건에서 민중들은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민간신앙과 무속에 기울어지게 되었다.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하고 초월적인 존재에 의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유교와 갈등을 자주 빚었다.

개항 이후에는 서구에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전파되었다. 이들은 기왕

---

12) 원로가 드물고, 인물을 키우는 데 인색하고, 시민사회가 저성장된 것이 제주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일반적 특성임을 우리는 이웃 일본 등과 비교하며 때때로 얘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경향이 육지부보다 제주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96년 5, 6월에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면 도내에 사표가 될만한 원로가 없다는 의견이 78.4%에 이른다. 이유로서는 제주사람들이 인물을 키우는 데 인색하다고 보는 것(79.9%가 동의)과 연관되었다고 논하고 있다(김항원 김진영 고성준 강근형, 2000: 71-72). 물론 좁은 지역에서 어울려 살아오면서 형성된 제주사람들의 성격에 관한 논의는 제주를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 그렇지만 격리되고, 수탈을 많이 받고, 산업화가 늦은 제주의 자연적 사회적 역사적 조건이 전통적 요소를 더 많이 잔재하게 한 구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위의 조사에서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거시적 사회변동에 원인이 있을 지 모른다고 사회구조에 관한 언급은 하고 있다.

에 존재했던 전통종교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유교와의 해계모니 싸움은 이재수난이 발생하게 된 한가지 원인이었다. 해방 후에도 제주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낮은 것은 위의 전통 신앙과 종교의 영향이 아직 강한 탓인 듯하다(김두옥, 1999).

종교 외 영향력이 컸던 이데올로기는 20세기 전반기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였다. 후반기에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13)</sup> 이 점은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4·3을 겪은 제주 사람들에게 더욱 심하다. 반공은 절대적 이데올로기로 의식에 내면화되었다. 4·3으로 인해 공간만이 아닌 심리적 의식적 무의식적 분단이 사람들에게 깊이 새겨졌다(제민일보 4·3 취재반, 1994-95).

한국전쟁 당시 도민이 해병대에 대폭 지원한 것은 그 영향 때문이다. 해병 입대가 반공의식을 증명하고 4·3 때 서북청년단에게 당한 피해를 보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졌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 현재도 해병대 지원자가 절대 다수이다. 해병 몇 기냐고 따지는 게 인사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4·3은 반공의식뿐만 아니라 도민들 사이에 갈등 반목 불신이 내재하도록 했다. 80년 광주항쟁이 외부인과의 싸움이였다면, 4·3 때는 도민들끼리도 싸웠기 때문이다. 2000년 1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를 전후한 성격규정 진상규명 명예회복의 구체적 작업에 있어서도 도민들 사이에 이견이 많다. 대외적 일에 나서지 않고 몸을 사리는 경향도 4·3 탓이 크다. 4·3 당시 많이 다치고, 이후에도 나서면 다친다는 생각이 품미하고 있다.

13) 반공주의는 다분히 ‘종교적인’ 성격까지 띠어 시민종교라 할 만하다. 이것은 냉전적 세계관, 자유민주주의, 친미주의, 근대화 열망 등과 결합되어 이데올로기 복합체로도 작동해 왔다. 이데올로기 복합체는 다시 국가적 의례체계, 성스러운 시공간과 인물을 창출하고 그와 결합하여 하나의 총체적인 과정과 체도로도 기능하고 있다(강인철, 2000: 348-354).

## V. 맺음말

금세기 제주는 생산력 측면에서 보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생산관계 측면을 더하면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사회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말기에는 탈산업사회의 모습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국제자유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제주에는 또 다시 탈바꿈할 것이다. 한국에서 변화가 가장 더디었던 주변 지역이 변화가 가장 심한 곳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한 세기 안에 이러한 급변을 이루거나 견디기는 개인처럼 사회도 쉬운 게 아니다. 대가가 없을 수 없다. 내부적으로는 전통 근대 탈근대의 여러 요소가 섞이면서 사회구조의 정합성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다. 외부적으로는 세계체제의 반주변부 중 주변부가 됨으로써 세계 변화의 파고를 온 몸으로 받아야 하는 과제가 있다.

제주는 20세기 초 전형적인 전통사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사회의 특성은 약해지고 근대사회의 특성이 강화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회의 성격이 여전히 혼재하고 있다. 전통적 성격은 육지에 비해 더 강하다. 사회 제부문에 따라 혼재의 비율도 다르다. 정치경제적 사회제도보다 사람들의 의식, 태도와 문화에서 전통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20세기말에는 전통사회, 근대사회의 측면에 탈근대사회의 요소까지 가세하여 세 특성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압축적 근대화 산업화 및 이와 연관된 비민주적 사회 제측면의 결과이다. 우리에게서는 이를 극복할 방법과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화와 국제자유도시화는 이를 시급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가 금세기를 이재수난으로 시작하여 국제자유도시로 마감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제주는 애초 주변부의 주변에서 출발하여 이제 반주변의 주변으로 귀착하였다. 주변부 봉건사회의 변방에서 반주변부 자본주의사회의 침병으로 변화했다. 외세의 침입을 먼저 받게 되는 변방에서 외부로 진출하는 발판인 전진기지로 바뀌었다. 수동적 변방에서

능동적 참여으로 변했다. 20세기의 시작은 제국주의 식민지로 떨어질 암담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끝은 종속 심화와 주체적 발전의 상반된 가능성을 열어 놓은 채 맞이하게 된 것이다. 탈근대의 조류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또 다시 종속이 심화될 것이다.

한국은 현재 기로에 서 있다. 현 상황은 위기이자 기회인 셈이다. 외적 변수인 국제관계, 특히 지정학적 상황과 세계경제 상황 등이 백년 전과 유사하다. 내적 변수는 그 때보다는 조건이 나쁜 분단, 그 때보다는 조건이 좋은 반주변과 한 세기의 역사적 경험이 있는 게 다르다. 한 반도는 통일의 호기를 맞고 있으면서 또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시점에 있다. 제주도 한반도의 이러한 조건 내에 처해 있다. 거기에다 국제자유도시라는 쉽지 않은 목표에 도전하고 있다.<sup>14)</sup> 주체적 준비와 대응에 따라 결과는 가변적이다. 도민이 주체가 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답은 농업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배태된 제특성을 산업사회에 걸맞게 재창조할 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정보사회화 경향에도 적응하여 세계체제에서 위상을 확립하는 데 있을 것이다.

요컨대 20세기를 하나로 보면 실패한 시대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시기를 둘로 나누면, 전기는 실패였지만 후기에는 반동의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역사 경험을 교훈으로 삼으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20세기 제주도의 사회변동과 발전을 성찰하는 의의도 여기에 있다.

14) 국제자유도시화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첫째, 중앙정부와 제주의 입장이 반드시 같지는 않아 중앙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중앙정부의 국익과 제주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중앙정부가 타지역과 달리 제주에만 집중 지원을 할 리도 없다. 둘째,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용역보고서의 지적대로 제주도를 국제물류와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은 타당성이 적다. 보고서는 국제관광지만 타당하다고 한다. 국제자유도시가 비현실적 목표라는 것이다(Jones Lang LaSalle,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다른 길은 보지 않고 이 길로만 매진하고 있다.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힘들 것은 사실이다.

### 참고문헌

- 강윤희(1994), "제주사회에서의 두 방언 사용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제주도연구』 11, 제주도연구회.
- 강인철(2000),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창작과비평』, 여름호.
- 김두옥(1999), "제주도 외래종교의 공간적 확산과 수용배경," 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석준(1998), "제주지역의 선거(1948-1992): 개괄적 검토와 재해석,"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2』, 한울(『탐라문화연구』 17, 탐라문화연구원, 1997에서 재수록).
- 김선엽(1993), "연줄망과 연고주의," 임희섭 박길성 공편, 『오늘의 한국사회』, 나남.
- (1992), "한국사회 연줄망의 구조적 특성," 『한국사회학』 26집, 한국사회학회.
- 김태보(1998), "제주지역경제의 발전사적 고찰," 『사회발전연구』 14,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 김향원 김진영 고성준 강근형(2000),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제주대학교 출판부.
- 박찬식(1995), "한말 천주교회와 향촌사회: '교안'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서관모(1984), 『현대한국사회의 계급구성과 계급분화』, 한국사회학회.
- 서울사회과학연구소(1997), 『근대성의 경계를 찾아서』, 새길.
- 신진욱(1999), "동시성의 문제와 시민사회의 이론 모델," 『경제와사회』 44, 한국산업사회학회.
- 신행철(1995), "제주사회의 기본적인 성격," 신행철 외 지음, 『제주사회론』, 한울.
- 양진건(1999),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제주도 유배인 열전』, 문학과지성사.
- 오성찬(2000), 『20세기 제주 사람들』, 반석.
- 이상철(1998), "제주도 개발정책과 도민 태도의 변화,"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2』, 한울(『제주도연구』 12, 제주도연구회, 1995에서 재수록).

- (1997), “제주도의 개발과 사회문화 변동,” 『탐라문화연구』 17, 탐라문화연구소.
- (1995),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개발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한울(『사회과학과 정책연구』 8권 3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7에서 재수록).
- 이준식(1999), “지역의 발견: 한국의 지역, 국가, 지역 운동,” 『정신문화연구』 겨울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창기(1999),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학교 출판부.
- (1995),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환경: 도전 적응 초월의 메카니즘,”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한울(『제주도연구』 9, 제주도연구회, 1992에서 재수록).
- 제민일보 4·3 취재반(1994-5), 『4·3은 말한다』 1 2 3, 전예원.
- 제주도(1993a), 『제주도지』 1권.
- (1993b), 『제주도지』 2권.
- 조성운(1998), “개발과 지역주민운동: 제주시 탐동 개발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2』, 한울(『현상과인식』 56, 1992에서 재수록).
- (1992), “제주의 관광개발과 주민의 각종 반대운동,” 『제주발전연구』 4, 제주발전연구소.
- Hobsbawm, Eric(1994), *Age of Extremes: The Short Twentieth Century, 1914-1991*(이용우 옮김, 『극단의 시대: 20세기 역사』, 까치, 1997).
- Jones Lang LaSalle(2000),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차 중간 보고서』.
- Lauer, Robert(1977), *Perspectives on Social Change*(정근식 김해식 옮김, 『사회변동의 이론과 전망』, 한울, 1985).

##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of Cheju island in the 20th century

Lee, Sang-Cheol

### Summary

The world has experienced great social changes in the 20th century. Social changes of Korea and Cheju Island were more dramatic. Because Korea was periphery, and Cheju Island was periphery's periphery. I study the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of Cheju Island in the 20th century. It's easier to analyze specific periods and subjects of a society when they ar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societal changes.

There ar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 social change. External factors were more influential than internal ones in the social change of Cheju Island in the 20th century. Because capitalism has penetrated to the four corners of the globe and made it into capitalism's own image. Capitalist world system and Korean society were the first and second variables of the change of Cheju society respectively. So I approach the change of Cheju society in terms of world system, Korean peninsula and Cheju Island.

The subjects of analysis are the sphere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Cheju society. I analyze especially in politics, i) geopolitical position in the world system, ii) the tradition of centralism and local politics; in economy, i) transition into market economy, ii) industrial structure, iii) from frontier to periphery, iv) industrialization and post industrialization; in society, i) population and urbanization, ii) from status to class, iii) peasant movement and social movement; in culture, i) time and space, ii) language, iii) consciousness and attitude.